

컴파운드 특화전략“대공세”

대림·럭키 등 앞다퉈 진출 … 일반 레진시장 빠른 속도로 잠식

제품 특화전략의 선두주자인 컴파운드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범용 그레이드에서 벗어나 고부가를 향한 각 기업의 경쟁력제고 방안이 가시화되면서 이같은 사업진출은 수요창출을 위한 의욕적인 경영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복합PP 생산규모 현황(1994)(단위 : M/T)

구 분	생산규모	기술도입선
호남석유화학	15,000	三井
럭 키	10,000	자체
동양나일론	5,000	자체
대림산업	5,000	자체
삼성종합화학	10,000	三菱油化
유공	10,000	HIMONT
현대산업개발	15,000	D&S plastics
기타	10,000	
합계	80,000	

(자료:CRI)

PVC Compound 산업현황(1993) (단위 : 만M/T, %)

구 분	PVC 생산능력	컴파운드 점유율	범용 케이블
일본	220	51(23)	12(24)
한국	73	12(16)	9(75)

(자료:CRI)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PP복합수지를 비롯 PVC·PE·ABS 등 합성수지 전품목에 대한 컴파운드가 해당기업의 특화전략에 편승, 기존 일반레진을 빠른 속도로 대체하면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복합PP의 경우 대림산업은 기존 NCC기업중 호남석유화학과 럭키의 뒤를 이어 93년 11월 대단위시설투자가 완료된 PE·PP플랜트에서 연산 5000 톤규모로 생산에 나서고 있다. 삼성종합화학은 일본 三菱油化로부터 제조기술을 도입, 1만톤규모의 연내 생산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으며, 현대산업개발도 1만5000톤 생산능력을 보유 오는 10월 신규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공은 유공하이몬트와 연계, 신일산업을 통한 기존 임가공 형태에서 벗어나 1만톤규모의 자체 생산을 94년내에 가시화할 것으로 보이는 등 최근 대규모 NCC의 적극적인 시장진출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따라 복합 PP시장은 기존 호남석유화학 1만5000톤, 럭키 1만톤, 동양나일론 5000 톤, 기타 1만톤을 포함, 모두 8만톤으로 예상돼 수요 5만5000톤을 웃돌 것으로 보이거나 자동차시장 호황에 따른 수요신장률이 15%를 상회하고 있고 환경규제에 따른 범용수지 대체로 장기적인 시장전망은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PE Compound 시장현황(1994) (단위 : 100만원/MT)

구분	용도	수량	금액	한양화학	기타	수입
전력선용	고압절연 XLPE 컴파운드	6,000	6,900	3,500	-	2,500
	옥외용 XLPE 컴파운드	4,500	4,950	2,500	2,000	-
	내부 반도체 컴파운드	600	1,260	-	600	-
	외부 반도체 컴파운드	900	2,520	-	900	-
	일반 절연용 수지	2,000	1,740	2,000	-	-
통신선용	Solid Skin Insulation 수지(HDPE)	6,000	4,800	4,000	-	2,000
	Foam Insulation 컴파운드 (HDPE Base)	5,000	5,500	3,000	-	2,000
	흑색 피복용	15,000	12,675	11,000	1,000	3,000
합계		40,000	40,345	26,000	4,500	9,500

(자료:CRI)

이와함께 PE·PVC 컴파운드는 럭키가 94년말 완공을 목표로 여천공장에 100억원을 투입, 연산 1만톤 규모의 전력선·통신선용 PE 컴파운드공장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등 본격적인 특화사업에 전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PVC 컴파운드의 경우, 기존 80여개의 중소기업이 13만여톤의 수요시장을 겨냥, 저급·저가의 제품으로 생산해 왔으나 이들 NCC기업의 참여로 고급 그레이드부문에서 연간 400달러이상의 수입대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PE 컴파운드는 전력선용(LDPE) 1만 6000톤, 통신선용(HDPE) 2만4000톤 등 모두 4만톤의 수요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번 럭키의 참여로 기존 한양화학과 함께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동남아를 상대로 한 수출다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가격면에서는 복합PP가 자동차시장의 ABS를 대체하면서 톤당 120~130만원대까지 상승했으며, 이 가운데 MF PP는 80~90만원, GF PP는 100만원, 난연PP, EM PP, TPO 등은 160~220만원으로 93년에 비해 평균 10만원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대규모 NCC기업의 신규참여로 기존에 시장을 형성해 왔던 중소기업 등 일부기업들은 원료구입에 따른 가격경쟁력에서 뒤져 상당부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4/10/10>